

제170회(정례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해화고가차도 철거요구 건의문(이숙연의원 외 8인 발의) 1면
 2. 서면답변서(박종식의원, 김성은의원) 5면

해화고가차도 철거 요구 건의문(안)

의안 번호	1236
----------	------

발의연월일 : 2006. 12. 6

발 의 자 : 이숙연의원 외 8인

1. 주 문

- 해화고가차도 철거 요구

2. 제안이유

가. 해화동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는 해화고가차도는 1971년 4월에 완공된 길이 240m, 높이 9.5m의 도심방향통행으로 설치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수년동안 승용차만 통행시키고 버스는 고가차도 밑으로 운행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나. 2년전부터 고가차도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다시 고가차도 위로 버스가 운행하게 된 이후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탄력을 받아 차도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자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20여년간 보수비는 무려 23억원이 투입되었고, 특히 최근 5년간은 고가차도가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가 심해지면서 보수비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둘째, 종로구에서 2006. 10. 19일 교통소음 허용기준에 따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주간의 경우 06시~22시에는 허용기준 68데시벨보다 1데시벨이 초과되었고, 야간의 경우 22시~06시에는 허용기준인 58데시벨보다 무려 10데시벨이 초과됨으로써 인근 지

역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고,

셋째, 고가차도내 빈번한 대인 교통사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에 총 98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중 사망사고가 4건으로 특히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2건이고,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2건으로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넷째, 고가차도 구조물로 인하여 남측 대학로 지역의 혜화 · 이화 · 동숭동과 북측 명륜3가동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저해 및 구조물에 대한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인근 주민들이 버스이용불편과 상권 위축 등의 이유로 향후 고가차도 보수공사 방해 및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조속히 철거 되어야 할 것임.

라. 따라서 위와 같이 혜화고가차도 철거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뜻대로 혜화고가차도를 철거하여 주실 것을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하는 것임.

3. 관련법규

○ 없음

4. 이송처 : 서울특별시(도로계획과장),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혜화고가차도 철거 요구 건의문(안)

□ 혜화동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는 혜화고가차도는 1971년 4월에 완공된 길이 240m, 높이 9.5m의 도심방향통행으로 설치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수년동안 승용차만 통행시키고 버스는 고가차도 밑으로 운행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 2년전부터 고가차도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다시 고가차도 위로 버스가 운행하게 된 이후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탄력을 받아 차도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자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20여년간 보수비는 무려 23억원이 투입되었고, 특히 최근 5년간은 고가차도가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가 심해지면서 보수비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둘째, 종로구에서 2006. 10. 19일 교통소음 허용기준에 따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주간의 경우 06시~22시에는 허용기준 68데시벨 보다 1데시벨이 초과되었고, 야간의 경우 22시~06시에는 허용기준인 58데시벨 보다 무려 10데시벨이 초과됨으로써 인근 거주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고가차도내 빈번한 대인 교통사고는 2004년부터 2006

년까지 3년동안에 총 98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중 사망 사고가 4건으로 특히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2건이고,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2건으로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넷째, 고가차도 구조물로 인하여 남측 대학로 지역의 혜화 · 이화 · 동숭동과 북측 명륜3가동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저해 및 구조물에 대한 심리적인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버스이용불편과 상권 위축 등의 이유로 향후 고가차도 보수공사 방해 및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위와 같이 혜화고가차도 철거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뜻대로 혜화고가차도를 철거하여 주실 것을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6.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원 일동